

시민사회운동 30년... 수행

정법빠리사 운영책임 도반 이남재 씨



이남재 씨는... 광주 정광고등학교에서 불교학생회 활동을 하며 불교에 입문했다. 1982년 부처님 가르침의 뿌리를 찾기 위해 동국대 인도철학과에 입학했다. 이후 민중불교운동연합·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파소헌법철폐투쟁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1994년부터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 홍보팀장,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국장 소임을 맡았다. 1997~8년 일본 교토불교대학 유학 후 동국대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했다. 지구촌공생회 사무국장·민주주의불자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합천평화의집 사무총장·위드아시아 운영이사·서울 월곡청소년센터 관장 등을 맡고 있다. 사진=노덕현 기자

“전두환 대통령을 타도하자!”
1982년 3월 2일, 동국대학교 어느 단상에서 한 학생이 독재정권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어디선가 전경들이 몰려들어 학생을 끌어낸 뒤 군홧발로 무자비하게 밟았다. 해당 학생은 전경들의 무력에 하릴없이 연행됐다.

동국대학교에 갓 입학한 스무 살 청년 이남재는 등교 첫날 이 같은 상황을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했다. 그는 근본적인 부처님 가르침을 찾고자 인도철학과를 선택했지만 첫날부터 큰 혼란에 빠졌다. 학문의 상아탑이라고 생각한 대학에서 그가 마주한 것은 ‘위대한 지식’이 아닌 ‘빼아픈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두 발 딛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그저 관념적인 내 공부만 할 것인가?”

청년 이남재는 한동안 고민했다. 그리고는 현실 문제를 직시하고자 학생운동에 발을 담갔다. 그는 노동현장에서 지내며 노동자들이 직접적으로 겪는 고통을 접하기 위해 학교를 1년간 휴학했고, 복학 후에는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파소헌법철폐투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면서도 불교학생회·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활동을 통해 늘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겼다. 특히 1985년 5월에는 민중불교운동연합 창립에 함께하면서 불교 대중화에 앞장서기도 했다. 하지만 독재정권 타도에 앞장서며 정부의 눈엣가시가 돼 구치소 신세를 지야했다.

“제가 인도철학과에 지원한 이유는 개인적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의문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눈앞에서 직면한 현실을 외면할 수가 없더군요. 휴학·구치소 생활·군복무 등을 다 겪어보니 대학교 졸업이 한참 늦어졌습니다(웃음).”

일본서 불교공부... 복지에 눈 떠

불교계,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30여 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이남재(53) 씨. 그가 현재 맡고 있는 소임은 합천평화의집 사무총장과 (사)위드아시아 운영이사, ‘원폭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추진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서울 월곡청소년센터 원장 등 단박에 위우기도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다. 하지만 이렇게 수많은 소임에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일’이라는 점이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보살행에 빠지게 한 걸까?

이 씨는 1994년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 홍보팀장을 시작으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국장 등을 역임하며 불교계 전반에서 활동했다. 그렇게 일하기를 몇 년, 이 씨는 그동안 바쁘게 일하느라 할 수 없었던 불교공부가 문득 하고 싶어졌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일본 교토불교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본불교계의 적극적인 대사회적 활동을 보며 적잖게 놀랐다.

“일본에서 1년 반 정도 유학을 했습니다. 일본의 종파불교에 대해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여러 사찰을 다녀보니 일본불교계의 사회 복지활동이 대단히 활발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조계종은 94년 개혁을 겪은 지 얼마 지나

지 않아 대사회적 활동보다는 집행부 정리에 힘을 쏟을 시기여서 일본불교의 이런 모습이 무척 감명 깊었어요.”

이 씨는 유학을 마치고 국내로 돌아오자마자 동국대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해 복지를 공부하고, 허허벌판에 가까웠던 한국불교의 복지기반을 다지는 데 노력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제안을 받아 불교사회복지 현황조사에 나선 것이다. 그는 승합차 한 대로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각지의 불교계 운영 복지시설을 돌아다니며 자료를 정리했다. 이런 그의 열정에 힘입어 1999년 한국불교복지의 현황을 망라한 <한국불교사회복지총람>이 발간될 수 있었다. 이후 점차 사회복지에 관심이 커진 이 씨는 서울 월곡청소년센터 원장직을 맡게 됐다.

“처음 월곡동에 가서 느낀 건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야만 하는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골목도 좁아서 한 사람밖에 못 지나갈 정도였고, 인근에 공부방이 없어서 학업과 멀어지기 쉬운 환경이었거든요. 그리고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조손가정이 많이 방치되는 아이들도 많았어요.”

이 씨는 월곡청소년센터 원장 부임 후 센터를 아이들의 공부방이자 주민들의 사랑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또 무료급식을 위해 사찰을 찾아다

지 않을 정도로 소소했는데 지금은 불교계를 대표하는 NGO단체가 됐죠.”

이 씨가 지구촌공생회에서 일하는 동안 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 등에 지은 우물만 1000개에 달한다. 그는 이후 불교계 국제구호사업의 확대를 위해 지구촌공생회를 그만두고, 현 합천평화의집 운영위원장인 연암 스님과 함께 (사)위드아시아를 설립했다. 캄보디아 오지마을에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공부방을 만들고, 당국과 협의를 통해 아이들이 중학교 진학에 불이익이 없도록 공부방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받게 했다.

“해외구호사업에는 절대적인 원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주체가 돼 마을을 이끌어갈수록 유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방 교사도 초급교육대학을 나온 그 마을주민이나 이웃마을주민이 맡도록 했습니다. 단순히 주고 끝나는 일회성 지원은 오히려 이 사람들의 자립을 막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이토록 해외구호사업에 매진하던 그는 어느 날 연암 스님에게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원폭피해자와 그 후손들이 병마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특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함께 일을 해보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간 어떤 사업도 주춤거리지 않고 성공적으로 끝냈던 그에게도 이 제안은 부담이 됐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과는 궤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았기에 걱정이 앞섰던 것이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그가 일을 해보겠다고 결심한 데에는 원효대사의 가르침이 한몫했다. 바로 원효의 일심사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귀일심원 요의중생(歸一心源 願益衆生, 본래의 참 마음으로 돌아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한다)’이다. ‘상구보리 하화중생’과도 맥을 같이 하는 이 가르침에 유바라밀만 잘 실천한다면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처음엔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직접 원폭피해자들을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죠. 오래 전 월주 스님을 설득하기 위해 제가 직접 현장에 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원폭피해자들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합천에 원폭피해자와 자녀를 위한 ‘합천평화의 집’을 만들고,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 번 원폭피해를 입으면 당대에 끝나지 않고 3~4대까지 유전적 질환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씨는 이러한 원폭피해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하기 위해 2012년 합천 비핵·평화대회를 개최했다. 위드아시아와 합천평화의집이 주최한 이 행사는 국내 최초로 국내의 핵 피해자들의 증언을 듣는 자리였고, 이는 곧 핵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1인 릴레이 시위까지 펼쳤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있었을까. 그동안 법 제정을 요구해온 원폭피해자특별법이 올해 11년 만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안건으로 상정되기도 했다. 특별법추진연대회의 측은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특별법 안건 순서가 뒤로 밀려 현재까지(12월 3일 기준) 논의되지 못한 상황이다. 소위원회는 추후 회의를 다시 열고

학생운동하며 사회문제 관심

불교의 대사회적 활동에 초점

나보다 '남' 위한 삶 살아와

수행과 복지활동 양 날개 삼아

사회 선도하는 불교 거듭나야

니며 쌀을 지원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물론 결혼후 원사업을 펼쳐 아이들의 학비 걱정을 덜어주는 데도 힘썼다. 그 노력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국내외로 뻗어나간 복지원력

이 씨는 청소년센터 원장으로 일을 하면서도 빈곤 국가 아이들의 어려움에 늘 관심을 기울였다. 물론 돕고 싶은 마음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래서 그는 월주 스님을 찾아가 외국 불교국가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아이들의 삶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스님의 반응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다. “국내에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굳이 외국까지 나가서 도와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이 씨는 포기하지 않고 스님을 설득했다. 개신교계의 해외구호 활동을 비롯해 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웨블행위 등 같은 불교도로서 도와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월주 스님과 직접 불교국가를 돌면서 열악한 생활환경을 직접 경험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월주 스님을 설득하기 위해 함께 라오스 오지마을을 찾아다녔습니다. 당시 월서 스님도 함께 가셨는데 그제야 해외구호활동을 하자고 말씀하시더군요. 첫 시작은 직원이 몇 명 되

꿈바위 시대가 왔습니다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 자가용 운전자를 위한 무사고 안전 기도.
- 조상숭배실천회, 세종대왕선양회: 전국적으로 지회를 조직하오니 동참 바랍니다.
- 포교활동 하실 분, 공양주 하실 분.
- 지역사회에서 큰 활동 하실분 지도자 양성.
- 꿈바위에서 크게 활동하실 화주보살님 모십니다.
- 꿈바위에서는 각종 경전불사를 하오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말 천수경, 문수보살에찬문, 보현행원품, 관세음보살보문품, 지장경, 아미타경, 금강경, 약사여래경, 대불정능엄신주, 성철크스님 불탄법어 신년법어, 영가천도, 대학 기타
- 창업 개업 하실 분 상호, 좋은 이름 작명해 드립니다.
- 대학입시 합격 기도 상담. (지금 상담이 중요함)
- 치매 예방, 암 예방, 중풍 예방, 비만, 변비, 우울증, 코골기, 스트레스, 가족 갈등, 상담과 특별지도 및 기도.
- 가정 방문, 회사 방문, 조상 산소, 상담과 기도해 드립니다.

● 태아영가 조상영가 천도 / ● 부산 - 일본 오사카(선상천도) 확실한 천도가 됩니다. 선상에서 천도하며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참여함.

꿈바위불교교육원

대전시 중구 대흥동 468-1 H·P 010-6789-5008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정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울면 고당리 473-2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복지로 세상 밝히는 계 꿈



이남재 씨가 원목피해자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민중불교운동연합 30주년 기념 토론회 및 기념법회에 참석한 이남재 씨.



2013년 9월 캄보디아 프레이프랑 마을에서 열린 위드아시아 드림나라이 센터 준공식.



지난 11월부터 정법백사 모임을 통해 선지식을 찾다니며 수행하는 모습.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건강 위기 극복 후 수행정진

이 씨는 불교계 다방면에서 활동한지 20여 년이 지났을 즈음, 갑작스레 그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2004년 러시아에서 열린 고려인 이주 기념행사에 참석했을 때였다. 갑자기 무언가가 계속 아랫배를 쿡쿡 찌르는 것만 같았다. 그는 귀국하자마자 병원으로 향했다. 병명은 비호지킨림프종(mon-Hodgkin's lymphoma, 혈액암의 일종). 생존확률이 50%라는 의사의 설명에 덜컥 겁이 났지만 곧바로 수술을 받았다. 이 씨는 대장을 절반 이상 잘라내는 대수술을 후 지속적으로 항암치료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항암제를 맞으면서 몸은 점차 아워었고, 어느덧 몸무게도 40kg대로 주저앉았다.

이 씨는 항암치료를 5회까지 받은 뒤 경복 문경으로 떠났다. 시골산속에서 작은 흙집을 짓고 요양했다. 참선과 기도, 수행정진의 시간이 계속됐다. 그렇게 4~5년간 방치됐을 때 그는 병원에서 완치판정을 받았다. 수행 덕분에 있었던 기도도 이뤄진 것이지는 중요치 않았다. 이때부터 그는 자신의 여생을 '담'이라고 생각했다. 수행과 봉사할 양 날개로 삼아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처음 병을 발견했을 때 당황스럽긴 했지만 이것 또한 나의 업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병 때문에 좌절하거나 우울하진 않았어요. 다만 건강을 되찾기 위해 욕심을 내려놓고 오로지 수행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완치판정을 받았을 때 앞으로는 죽을 때까지 남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죠."

이 씨는 이 같은 다짐 이후 그동안 수행을 뒤로한 채 사회활동에만 매진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며 자신을 바라보는 데 집중했다. 그런 연장선의 의미로 최근에는 도반들과 수행모임 '정법백사(Dhamma Parisa)'를 창립했다. 부처님 개척정신을 이어받아 수행·교육·자비행을 하며 새로운 전법시대를 열어가는 평등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는 정법백사에서 수행을 통해 자신의 허물을 들여다보며 중생심을 발보리심으로 바꾸는 힘을 키울 생각이다.

"다른 사람의 티는 잘 보이지만 정작 자기 문제는 잘 안 보인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내 수행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정법백사는 수행을 중시하지만 개인적인 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발보리심이 사회에 전해질 수 있도록 정진하는 게 목적입니다. 현재 매주 도반들과 수행을 하고 있고, 얼마 전 '108 선지식 구도순례 임재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전국 각지의 선지식들을 만나 수행한 진리가 무엇인지 공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계산해보니까 108명을 만나려면 18년이 넘게 걸리네요. 오래 살아야겠습니다(웃음)."

쉬운 교리 해석·청정승단 모범 절실

젊었을 때부터 그 누구보다 활발하게 불교계에서 일했던 이 씨. 그는 불교계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지금은 불교계의 복지활동이 꽤 세분화돼 있습니다.

90년대의 초기시절과 비교하면 상전벽해 수준이죠. 다만 불교 교리가 일반인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교리를 잘 녹여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부담 없이 받아들여야 자연스럽게 지역 복지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스님들이 올바른 청정승단의 모범을 보여 신뢰를 쌓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불교는 조선왕조 500년 동안 억압을 받으면서도 사회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현 시대에 그걸 못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요?"

이 씨는 인터뷰 내내 불교가 우리 사회의 큰 빛이자 목탁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제자들이 내적 수행을 잘 다져야 한다고. 그는 불교가 현대인들을 위한 정신적 귀의처로 거듭나 경쟁이 격화된 시대에 상생·공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사회에서 불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복지와 마음치유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량심과 자비회사 정신을 바탕으로 앞서 얘기한 두 축을 잘 세우야 불교가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또 한국불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점차 떨어지고 있는 이때에 재가자들이라도 나서서 열심히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면 불교계 문제 중심에 있는 분들이 다만 조금이라도 느끼는 게 있지 않을까요?"

향기 나는 꽃에는 벌과 나비가 모여드는 법이다. 수행정진과 복지활동을 통해 세상을 밝히고 싶다는 이남재 씨의 원력이 비록 세상의 묵은 때를 단박에 씻겨낼 커다란 물줄기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을 날이 오길 기대한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전법일기

21세기 아나올 존자를 위해

부처님께서는 불행하고 소외된 중생들도 불성이 있고 평등하게 살 권리가 있음을 밝히시며 그들을 어루만지려 이 세상에 오셨다. 손과 발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과 발이 되어주고 눈과 귀가 필요한 이들에게 눈과 귀가 되어주며 어둠의 늪에서 허덕이는 이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잡아준다던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며 부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수화는 청각장애인들의 언어이다. 청각장애인들은 의사소통의 장애로 수화통역사가 없으면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없는 아픔이 있다. 우리는 곁을 마주 시작하면서부터 말을 배우고 그것으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말과 소리를 잃어버린 청각 언어 장애인들은 가족들

잘 이해해주고 사랑해 주시길요." 처음 그들을 만났을 때 타종교에 비교하면 장애인 단체도 부족하고 전문학교도 없고, 대화의 장도 열리지 않았다고 아쉬워하고 불평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불교 포교사가 되어 도반들을 포교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육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도움 받기를 원했지만 오랜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며 비록 그들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달려가서 베풀어야 한다는 자세로 이들의 마음가짐이 변화했다는 것이다. 이제는 그들도 도움을 받는 것보다 자신들이 베풀 수 있다는 자제를 너무도 행복하게 느끼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불교계의 현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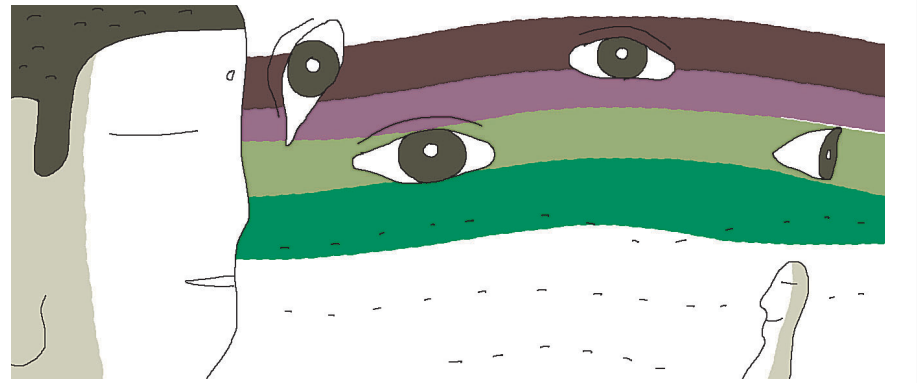


그림 · 박규원

과의 대화는 물론이고 그토록 듣고 싶어 하는 큰스님들의 법문도 수화통역사가 없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일요일 법회에서의 일이다. 부처님께 참회 발원을 위해 모인 청각장애인들은 법문 중에도 불교의 전문용어들을 접하며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어려워했다. 한 단어라도 더 배우고 알기 위하여 수화를 하는 나의 두 손끝에서 눈을 돌리지 못하는 그들을 보며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감사함을 느꼈다.

오래 전의 일이다. 한 법회에서였다.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님은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으로 소리를 관하시며 고통받는 중생들을 보살펴주시는 세계에서 가장 멋진 사회복지 실천가입니다. 우리도 비록 육체적인 장애는 있지만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으면 바로 달려갈 수 있는 천수천안의 관세음보살이 되어야 합니다."

법문을 하자 한 장애인 법우가 손을 들고 말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소리를 보시는 분이면 청각장애인들의 스승이시네요. 우리도 소리를 수화를 통하여 눈으로 읽고 있고니까요. 그래서 청각장애인들을

각박하다. 사찰 법회에는 제대로 된 수화통역사가 없으면, 법회 영상물에서조차 수화안내가 없는 실정이다.

종단 내에서 장애인 전법단을 비롯한 많은 원력을 지닌 이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재정적인 문제 등 어려움이 직면해 있는 것이 실정이다. 지역특성상 계단이 많고 경사가 깊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라면 염두를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접근조차 힘들어 내용이 드문 까닭에 사찰이 이들만을 위한 별도의 법회나 신행 활동을 열겠다는 발상은 쉽게 떠오르기 어렵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천안제일(天眼第一)'로 일컬었던 아나올 존자는 시각장애인이었다. 많은 사찰에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어 법회 및 강의를 수화로 통역해 준다면 청각장애인들은 불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찰을 참배하며 불교신행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다. 이들 중에 21세기 아나올 존자가 나오지 않을까.

해성 스님(연화원 이사장)

2016년(불기2560년) 불교캘린더 출시!!!

뛰어난 작가의 작품을 엄선하여 더욱 다양하게 제작하여, 좋은 품질·저렴한 가격으로 각 사찰·암자·포교당 등 대·소량 주문과 납품이 쉽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야기획 GAYA ENTERPRISE 가야기획 카렌다는 가까운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